voiceye.com VOICEYE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17년간 미술을 가르치며
시각장애인과 미술 사이의 거리를 좁혀온,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엄정순 대표

화가이자 대학교수이던 엄정순 대표가 미술 수업조차 없던 맹학교에 스스로 찾아가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 온지 올해로 17년이 되었다.

엄 대표는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1997년 (사)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우리들의 눈'을 만들고 시각장애 학생은 물론 성인들에게도 시각장애인 맞춤형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개인 회화작업과 협회 대표로서의 활동까지,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녀는 쉴 때도 시각장애인 예술 프로그램을 구상할 만큼 열정을 쏟고 있다. 엄 대표는 시각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멀게만 느끼지 말고 마실 나가듯 편하게 즐겼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 '우리들의 눈' 갤러리 전경

voiceye.com VOICEYE

안내하다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가까운 의자에 앉히거나 벽 또는 기둥 곁에 편안히 서있도록 해주세요.

주변상황을 간략히 설명해주고 자리를 잠시 비우겠다고 덧붙여 주면 더욱 좋습니다. 돌아온 다음엔 돌아왔다고 말씀해주세요.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은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 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전화 : 02-6925-1113)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국민은행 835-01-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예금주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손으로 보는 세상 | 제18권 12호 통권 149호

2012년 12월 15일 발행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최동익
편집 노상미 제작 크리콤 (T.02-2269-6224)
전화 02-6925-1121 팩스 02-6925-1117
Homepage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E-mail kbuhongbo@hanmail.net
우)150-91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표지 사진설명 – 위쪽부터

-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장면
- '시각장애인시설 고치기사업'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임직원
- 제3회 시각장애인 여성지도자 연수 참가자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격려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 DECEMBER 2012 | VOL 149

우측상단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voiceye.com VOICEYE

손으로 보는 세상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참정권을 위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나서다

오는 12월 19일은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선거정보 접근에 있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헌법소원과 소송 등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공은 의무조항이 아니라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으며, 또한 선거공보물을 점자로 제작할 경우 점자의 특성상 발행면수가 3배 이상 늘어남에도 면수제한이 묵자(일반글자)와 같아 시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같은 선거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 5명이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사진 일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공]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장면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물 ▶

시각장애인의 마음으로 보는
영화 '광해'는 어떤 느낌?

우리 연합회는 CJ CGV와 함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CGV 장애이해 교육-나눔의 영화관'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안대를 끼고 화면해설(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의 내용을 음성으로 설명해 주는 서비스)이 삽입된 영화 '광해'를 관람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시각장애체험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익히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화원중학교, 청량고등학교 등 6개 학교에서 450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시각장애인계에도 우먼파워가 거세지고 있다"
여성시각장애인 리더들 한자리에 모여…

시각장애 여성 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간의 교류를 넓히기 위한 '제3회 시각장애인 여성 지도자 연수'가 지난 11월 26일 서울 방화동에 위치한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에서 열렸습니다.

연수에서는 호감을 부르는 이미지 메이킹, 운명을 바꾸는 목소리 트레이닝, 셀프리더십 함양을 통한 아름다운 성공인생 만들기 등의 강의와 서로간의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간담회, 친교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NEWS ALBUM

1 '2012년도 제2차 전국심화재활교육'이 11월 21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최됐습니다.

2 올해 8월 시작한 '중증여성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멋진엄마되기 프로젝트'가 지난 11월에 종료됐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부모교육 및 제과·도예·꽃꽂이교실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시각장애 주부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3 '원더풀과 함께 하는 시각장애인가정문화체험'이 지난 11월 10일 가평 산내들체험마을에서 열렸으며, 도자기 빚기·승마·사륜오토바이타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VOICEYE
voiceye.com

"집도 마음도 함께 치유해요"
Green Healing-시각장애인시설 고치기사업

'스탠다드차타드금융그룹'과 '한국해비타트'는 시각장애인에게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Green Healing-시각장애인시설 고치기사업'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진행했습니다.

가나안의 집, 소망복지원 등 시각장애인 시설 4곳에서 내부 도배, 실내 환경 개선공사 등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실시됐으며, 스탠다드차타드금융그룹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사진제공=한국해비타트]